

**동우컬럼**

마음속 신호등

거리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가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이 있다. 당연히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고, 자칫하면 대형참사를 낳는다.

마음에도 신호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신호등이다. 양심이 ‘가라’할 때 가야 하고, ‘서라’할 때 서야 하건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해버리면 경고를 받고,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아담이 그랬다.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마음속의 적색 신호등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무시했다.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었고, 대형사고를 쳤다. 사울 역시 그랬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온다. 그때 사울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했고, 망설였다. 하지만 ‘에라~’ 하며 달려버렸다. 당연히 딱지를 떴었다. 사무엘이 그를 나무랐고, 하나님은 그의 왕 되심을 후회하시고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셨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전8:7).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아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먹는 자가 있었다. 그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추석이다. 늘 말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절대 안 된다. 한 가정의 며느리이고, 장손, 가장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라고 돈을 내놓는 그런 것들에 찢림이 있는가? 마음의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왔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뒤에서 뺄뺄거리려도, 옆에서 그냥 가라고 해도 무조건 서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이, 더욱이는 문중에서 ‘네 이놈~’ 해도 달리면 안 된다. 딱지를 떼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무나 신호등을 세우는 것이 아니듯, 양심의 기준 또한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그 마음의 신호등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곧을 수 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행24:16).

우리는 지난 2014년 5월 20일, 서울시 청광장에서 제4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하기로 작정하고 수도권외 교역자들 및 재직들과 함께 2014년 3월 24일 서울시청광장 도서관 앞에 모였다. 목사님은 베네수엘라(Venezuela)로 떠나시기에 앞서 긴장 의식을 강조하셨다.

“내가 오늘에 있는 것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느니, ‘본부에서 알아서 준비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

는 갑작스런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연되었고, 다시 날짜를 잡아야 했다. 서울시청광장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 많은 집회와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에 빈틈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누가 닫을쏜가. 도무지 없는 날짜 가운데 오직 추석 당일(9월 8일)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목사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하셨다. 추석 명절에 누가 참석하겠냐는 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앞에 놓은 그 어떠한 문제라도 돌파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오로지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일까? 더군다나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무수한 경험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19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를 경험한 분들이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대형집회뿐 아니라 그 어떤 집회라도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전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을 보아왔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며, 또한 스



2014년 9월 8일 추석 명절에 진행된 제4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서울시청광장)

집회를 성공할 수 없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곳에 모여 기도하며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을 모두 한 바퀴 돌고 남산으로 올라가 팔각정 앞에 모여 서울을 내려다보며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이 기도성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교회사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이지만 기도하는 교단이기에 이 대업을 맡겼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성회를 계속하시겠다는 목사님이다. 나아가 통일이 되면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역설하신다.

2014년 봄에 계획한 평화통일 기도성회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물휴지를 들고 나가 전도에 매진했고, 무대 설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대역사를 이루었다. 9월 8일 추석 명절 당일, 서울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그 장면은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행사 순서를 맡은 자들, 찬양하며, 율동으로, 사회, 통역으로, 안내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것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첫 서울시청광장의 평화
통일 기도성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벌써
서울시청광장에서만 평화통일 기도성회
를 4번째 진행한다.

기도와 노력, 목사님이 던지신 이 화두는

스로 모범을 보여오셨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깊이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우리 교단에 맡기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벌써 12차에 걸쳐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적극 부응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세대에 이 벅찬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끝까지 기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기억되는 대 역사를 이루어보자. **합렷루야!**

한은택 목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8월 26일(월) ~ 10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8:27)

가난한 자를 못 본 체 하지 말라

‘부자로 죽을 것이냐, 부자로 살 것이냐?’ 말하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처럼 살 것이냐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대문 바로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매일 파티하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명품 걸치고, 수억짜리 자동차 타고, 매일 맛집 찾아다니고, 틈만 나면 파티하며 산 겁니다. 바로 눈앞에 헐벗어 굶고 배고파서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자의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는 죽어 음부로 내려가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선택한 행실로 입증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베드로 선생님, 이것 보세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이에요. 겹옷도 있어요.” 하며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식솔들까지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봤더니, 고넬료가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다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행10:2).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 고넬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 ‘죽었는데 뭐 하러 가?’하고 아무도 안 찾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그분이 어려울 때 쌀을 줬다.’, ‘애들 학비를 줬다.’, ‘어머니가 아플 때 병원비를 줬다.’ 등등 아버지가 베푼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지 인복(人福)이라는 이름대로 살다가 셧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땃돌에 신발이 마르면 가난하게 된다고 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쌀독의 쌀을 퍼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고 하셨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는 약속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3천만의 호구’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났

습

니다.

호구(虎口)란 사전

적 의미는 ‘어수

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뜻하나, 그 여인은 어수룩해서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선택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필요할까봐 자원하여 한없이 베푸는 자였는데, 그녀가 고백하길, 그랬더니 자기 수중이 빈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열었더니 오히려 지갑이 풍성해졌다며 지금 부족함이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오차가 없는 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목회 초기부터 전국과 전 세계에 오디오 테이프는 물론 비디오 테이프까지 무료로 나누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로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보내려면 거의 1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우리는 원하는 사람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기

틀이 되었고, 땅끝예수전도단을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그 회원들이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40년 전부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무료로 먹이려고 하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창고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고,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2:26).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

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

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쌀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

을

산

믿음이

라고 할

수 있겠습니

까(약2:15~16).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

을 줘야지요. 큰 걸 하라는 것 아닙

니다. 수억씩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라면 한 그릇에도 감사, 감격합니다.

구제는 절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7~18).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는 사랑을 가르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레위인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옮기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보살핌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고 말씀하십니다.

나눌 게 없다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

눌 것이 있다고 합디다. 정 없으면 재능 기부도 좋고, 시간이 날 때 힘으로라도 보탬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다 가능하지요. 자고로 물이 고여 있으면 내(川)가 될 수 없고, 강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야 내도, 강도 이뤄 그 안에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해질 뿐이라”(잠11:24).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썩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12:33). 즉 구제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장받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노후보장은 물론 사후보장까지 든든한 보험이지요. 보험 많이 들었다고 소문내면 악이 틈잡니다. 최고의 보험인 구제도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법입니다(마6:2~4).

코로나19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끔 착한 건물주들이 나타나 임대료를 깎아주고, 아예 안 받기도 한다는 소식들을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한여름에 냉수처럼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부자로 죽으면 뭇합니까? 갈 때 다 놓고 가는데요. 살아 있을 때 나누고 베풀어 부자로 살다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 가난하고 병든 내 이웃을 돌보고 베푸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여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의 뜻대로 행해야 ‘잘했다’ 칭찬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명절 때가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탈북민들,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이 옆에 있길랑 명절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그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분들은 따스한 사랑이 그리워요. 괜히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귀신에게 바치지 말고, 살아 있는 내 이웃과 나누세요. 나누면 없어지고 적어질 것 같지만,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즐거운 추석 지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내게 맞는 것이 최고 명품

진짜 명품은 나에게 잘 맞는 것이다.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명품이라도 내게 안 맞으면 내게는 명품이 못 된다. 누군가에게는 잘 어울리는 명품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명품 구두를 신어보니 왜 그리 발이 아픈지,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견뎌보나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발이 쪼여 아프다. 그래서 명품인가 보다. 일반 구두는 처음에는 딱 끼어도 며칠 지나면 적당히 늘어나서 참으로 편안한 구두가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명품일까?

날마다 편하게 신고 나가는 구두가 명품 아닐까? 날마다 쉽게 입고 나가는 옷, 쉽게 들고 다니는 핸드백..., 이게 명품이지, 신기 거북하고 입기 거추장스럽고 들기 거북한 핸드백, 늘 장롱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특별한 날 한 번 멋 부리려고 취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경 쓰이는 그것이 명품일까? 그것은 장롱 명품일 뿐이다. 너무 편하고 좋아서 늘 신고 들고 입고 다니는, 그래서 헌데가 나고 너털너털한데도 계속 사용하고 싶고, 아주 편안하여 아무 거림 없는 그것이 나에게 명품인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이 보기에 우러러보이는 남편, 아내, 가족, 이웃이 명품이 아니고 나에게 편안한 남편, 편안한 아내, 편안한 가족이 나에게 명품인 것이다.

직업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직업이 명품 직업이 아니고,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나에게 명품 직업이다. 그 일을 하면 신명 나는 일, 밤을 새워가며 해도 피곤치 않은 일, 그 일이 나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명품 직업인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세상에서 잘난 자나 세상이 우러러보는 뛰어난 자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자가 명품 일꾼일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함 없고 편안한 사람들이다. 다윗, 예수님 제자들, 바울, 우리 목사님..., 동일한 명품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과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명품이 되도록 힘써보자.

그러니 남들 보기에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좋은 직업 찾지 말고, 내게 좋고 편안한 물건, 사람, 직업을 찾는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우리도 명품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다.

남의 인생을 살다 가지 말고 내 인생 살다 가자는 말이다. 남의 인생을 살려니가 덜 쟁거리고 힘들고 아프다. 길이 아니면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

내게 맞는 것을 찾아보자.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명품을 찾자. 명품을 찾아 신바람 나는 여생을 계획하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일에 신바람 난 것처럼. 손이 손 역할을 하는데 신바람 나고 편안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To Be Succeeded ::

영광의 그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양 떼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소서!”

28년 전의 집회 영상 속에서 들려온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였다. 지금도 이 기도 소리는 여전하다. 목사님은 집회와 예배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꿈에 찾아가서까지 안수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신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듯 나 역시 목사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경책과 가르침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또 때로는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시며 상하고 지친 영·혼·육을 치료해주시다.

세상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던 목사님이 모든 것을 초개처럼 버린 채, 죽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은 간증하신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도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순간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고 말이다. 이 밖에 수없이 많은 간증들과 목사님을 통해 일으킨신 기사와 표적들은 목사님의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자 당신의 종을 이 시대 사

도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기록이다.

목사님이 지나오신 40년 목회의 길은, 오직 기도로 만든 작품이다. 환난과 핍박,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난제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한걸음 씩 전진해오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요14:12)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은, 또한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며 우리를 가르쳐오셨다. 화려한 문벌과 학벌,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앞에 있는 구원과 상급의 뜻을 바라보고 영광의 레이스를 완주한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은 앞으로 쉬지 않고 뛰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주를 위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고전15:19, 고전15:50~58). 목사님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도

내게 주어진 자리

오랜 기간 중고등부 교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사명에 부도내고 싶지 않았습니

다.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켜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도의 길을 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임을 깨달았고, 그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순종들이 쌓여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어진 일

에 순종했고, 결국 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부분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셨기에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주신 지금까지의 삶이 있기에 앞으로도 제 삶 속에 함께하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느 자리가 주어지든 제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실천하려 합니다(시139장).

윤예녹 생도



:: 낮은 울타리 ::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최근 비행기 난기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난기류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 혼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의 문제를 알고, 또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장님과 승무원분들은 승객과 다르게 참 차분해보입니다.

종종 이렇게 무지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삶에서 일어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감당해보지 않은 크기의 파도가 내 삶에 찾아올 때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4:40)라고 꾸짖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 폭풍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어부 일을 했던 제자들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고, 예수님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역량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몰라 폭풍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말하지만, 실상 이런 폭풍이 오면 쉽게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냐며 다급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우리가 이 폭풍으로 인해 흔들릴지언정 다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있는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람도, 파도도 순종시키고, 폭풍도 잠재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장수정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빛이 되리라 ::

기도의 양이 떨어지면 안 돼!

평상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가라! 가라!” 쫓은 후, 거실에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성경책 한 장을 읽고, 기도 30분을 한 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갑갑한 작성기도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아침 30분이 저의 하루치 기도 분량이었죠.

하계산상집회를 다녀온 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미약할지라도 삶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자고요. 그 시작은 밤에도 30분씩 기도하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겠으나 습관이 자리 잡히지 않은 저에게는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 실천했지요. 하지만 3일을 못 가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잠깐 쉬다 보니 어느새 시곗바늘이 밤 11시를 향해 갑니다. 원래라면 기도하고 자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점심시간에 읽기 시작한 책이 너무 재미있어 조금 더 읽고 싶더라고요. 침대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졸리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거라는 걸요. 분명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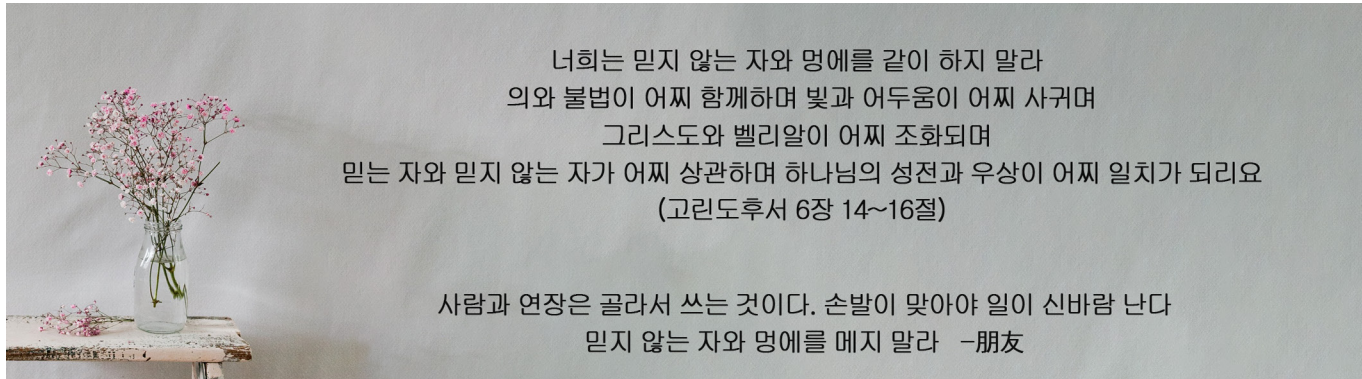
원에서 매일 밤 30분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어찌지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예상대로 한 시간쯤 책을 읽다 보니 졸음이 쏟아져 전등을 끄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읊조렸죠. “오늘 하루도 함께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로 통 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꿈을 꿔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데 이시대 목사님이 저의 침대맡에 와서 걸터앉으시더니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기도의 양이 떨어지면 안 돼!” 그 말만 하시고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의 등 뒤로 어떤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어느 순간 목소리가 툭 나오고 몸이 팍 풀리면서 깨어났습니다. 그 즉시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지요.

저는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날도 있

지만, 마치 숙제하듯 억지로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날도 있지만, 잡념이 가득하여 기도예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질 낮은 기도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목사님은 저에게 기도의 ‘질’을 높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양’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질이 좋은 기도가 아닐지라도 날마다 시간을 들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미지근하게 시작했던 기도가 뜨겁게 달궜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꾸벅 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복되듯, 어찌하든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주님을 향한 노래 ::

아빠,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요1:12).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받은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된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세상에 권력자, 재력가, 유명인들을 아버지로 둔 자식들도 평평거리며 사는데, 하물며 그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어찌할까요? 진실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말입니다.

작년 2월,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덧 혼자 걷기도 하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봉사하러 내려간 날, 아이가 자는 새벽에 집에서 나와 온종일 봉사하고 저녁때가 돼서야 집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얼굴도 볼 겸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자려고 누워있던 아이가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

빠!”를 연신 외쳐대며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 쪽으로 쫓아왔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아빠’를 10번은 더 불렀을 겁니다. 휴대폰 너머에서 그토록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찡하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마음이 기쁘시고, 감동하시겠구나!’

또 하루는 설교 준비를 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꾸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표정과 목소리까지 불쌍한 척을 하며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아빠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안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곳에 가서 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노나 싶더니 다시 와서 안아달라고 조르고, 다시 보내면 또다시 와서 졸랐습니다. 결국 제가 안아주고 나서야 아이는 제 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때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 얼른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요구사항을 끝없이 아빠에게 요청했고, 결국 저는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삶뿐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 한 마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심정을 헤아리시고 보살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간청하고, 또 간청한다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니까요!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할 수 있다는 생각

최근에 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 그래픽카드를 새로 교체하려다 보니 먼저 전원을 인가해 주는 ‘파워’ 성능을 높여야 했다. 적정 사양의 파워를 알아보고 직접 교체해보려는 마음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배달된 파워를 보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크고, ‘이게 조립이 잘 될까?’라는 생각에 웬지 짜~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날을 잡아서 호기롭게 교체에 도전했다.

그러나 막상 본체를 열고, 전선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걸 그제야 깨달았다. 기존 배선을 탈거부터 해야 하는데 좁아서 손도 잘 안 들어가고, 어디에 뭘 연결해야 하는지 막막하 기만 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됐다. 그만하고 어디 맡겨야겠다.’ 결국 포기 수순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한다고? 이미 구매한 건 어찌고?’ 등등 이런저런 생각으로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기도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왔잖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다시 시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다시 시도했다. 신기하게 마음을 바꾸고 반드시 해낸다는 생각으로 시도하니, 막혔던 실타래가 하나둘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교체에 성공했다.

교체하고 PC가 다시 잘 작동하는 걸 보니 기쁨과 성취감이 밀려왔다. 중도에 포기했으면 느끼지 못했을 마음이다. 아무것도 아닌 컴퓨터 부품 교체 하나도 내 생각이 어떠한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해야 할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 일도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둘 헤쳐나가며 전진해가고 싶다. 포기하지 말고 맞부딪쳐 싸워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